

목포해양대, 교명서 '목포' 삭제 추진 무산

교육부 "반대 의견 해결할 때까지 안돼" ... 학교측 "설득이냐 다른 이름이냐" 다시 논의

교명에서 '목포'를 삭제하는 국립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 변경 추진이 무산됐다. 목포해양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해결할 때까지 교명 변경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앞서 목포해양대는 지난 6월 29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해양국립대학교'를 새로운 교명으로 결정하고 8월 17일 교육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했다. 목포해양대 측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신입생 및 해외유학생 유치에 대해 대학 브랜드 제

고와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교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목포시는 교명에서 '목포'를 빼려고 하는 계획에 반대하며 교육부를 방문하고 교명 변경 반대 의견서와 시민 1만3000여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교명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부는 전국 대학 및 광역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교명 변경 불가사유로 한국해양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유사 교명으로 인한 갈등 및 혼선 우려 등

의 이의제기를 들었다. 또 교명 변경을 위한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창회 내부의 이견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라남도 와 목포시의 '목포'를 뺀 교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불가사유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처리할 분쟁중이 있는 교명 변경은 분쟁 해결 시까지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대는 교육부의 불가 방침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은 "교육부가 교명 변경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먼저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동창회나 학내에 알려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의견 수렴을 거쳐 다른 교명을 선정해 재신청할 지,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해 다시 추진할지 여부는 차기 총장이 선출된 만큼, 임기가 일주일 남는 제 역할은 다했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상생지원금 출장 접수 영광군 취약계층 대상

영광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집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홀로 사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국민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지난 8일까지 서비스 운영을 통해 230여명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오는 29일까지 주·시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항일 역사 깃든 저수지 힐링 공간으로 변신

임태면 단고리 '천사섬 수변공원 6호'의 야간 경관조명. <신안군 제공>

신안군 임태면 천사섬 수변공원 6호 준공... 황토포장 산책로·야간 경관조명 설치

천사대교 개통으로 교통·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한 신안군 임태면에 새로운 테마의 힐링 공간이 조성됐다. 신안군은 임태면 단고리에서 지난 7일 박우량 군수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섬 수변공원 6호 준공식을 가졌다. 임태면은 소작인들이 식민성 지주와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한 소작농민항쟁 역사가 깃든 곳이다. 또 향후 복합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안경찰서, 소방서 신설 및 추포-비금 간 연도교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신안군 관광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번에 조성된 수변공원 6호는 임태면 단고리 저수지를 정비해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임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저수지 내수면에 석축을 쌓고 650m 구간의 황토포장 산책로를 조성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야간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은은한 경관조명으로 별빛 속을 걷는 듯한 아름답고 특별한 수변공원으로 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태 수변공원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건강증진과 힐링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초기반시설 확충과 특화 경관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지역소멸위기 극복 시책 발굴 눈길

청년·농업·결혼 등 8개 부문

해남군이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해남군은 지난 5월 지역소멸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민간 공동협의체를 구성 후 전문가 강연과 심층토론을 통해 군의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8대 시책을 발굴했다. 8대 시책은 청년시책과 농업시책, 교육시책 3개 분야로, 일자리, 결혼과 출산, 보육 및 교육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협조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에 나갈 예정이다. 청년시책으로는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공동화 방지를 위한 청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과 임시 주거비 지원사업 등 주거정책, 예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시

범사업,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등이 발굴됐다. 교육시책으로는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유학 확대 운영 등이 포함됐으며, 농업정책으로는 청년농업인 상담 지원과 청년협업농장 지원 등이 추진된다. 발굴된 시책은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사업성과 분석 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와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불안정한 인구구조 형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시책발굴은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스스로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해수청, 가을철 성어기 등대시설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가을철 성어기 출어선 증가 등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라 항행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등대시설 집중 점검을 한다. 성어기에는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행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 선박 사고 위험이 높다. 목포해수청은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의 주요 어

로활동 해역에 위치한 진도·완도권역 국유시설은 물론 사유 등대시설의 등대, 등부표 총 138기를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어선 사고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 특히 항로표지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독감예방접종 실시

진도군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12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독감 유행시기는 오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예방접종 효과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이 권장된다. 진도군에 따르면 생후 6개월-만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 10개소와 보건소,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에서 진행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